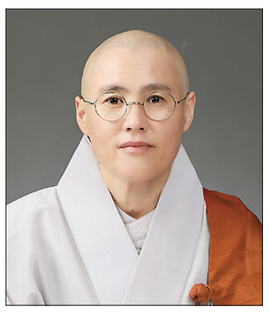
27회 불교복지대회…경륜·정관 스님 공로 인정

12월 3일 오후 2시, 동국대 남산홀
경륜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정관 스님 국회의장 공로장 선정
창립 30주년 성과 결산·비전 제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경륜 스님


정관 스님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실천가들을 시상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이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부문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재단 창립 3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난 성과를 결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불교사회복지 비전 제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사무처장 덕운 스님을 비롯한 교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인사, 전국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포함해 장관 표창·국회의장 공로장 등 총 30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부문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는 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유보통합을 계획·실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을 통해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필요에 따라 주말 공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 선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불교 내에서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22년간 효문화 실천을 위해 어르신들 곁을 지키며 복지실현에 앞장서 왔다. 실천 현장 개선 및 발전, 노인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적극적 아젠다 형성, 사회복지 후학 양성, 선진 복지환경 전파 및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 및 노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사회복지현장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안양규 동국대 불교상담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서울노인복지센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이해청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이지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02-723-5102



연화원 "장애 넘어 하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발원하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이 11월 1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22회 수어사랑 음악회 및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음악회에서는 해성 스님이 마하무용단·마하연모회와 함께 무대에 올라 신명 나는 난타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음악회에 앞서 장애인 단체에 자비의쌀 3000kg을 전달했으며 장애인 부모의 자녀와 장애인 학생 5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다. 또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에 〈점자 불교성전〉 제7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 곳곳서 이어진 김장 김치 자비나눔

여성불자회, 2000kg 보시행
분당 대광사엔 다문화 봉사도
진안 쌍봉사 150가구에 전달


분당 대광사가 11월 15일 지역사회와 함께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민 500여 명이 참가해 김장을 담가 800여 세대에 전달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단체들에서 불자들이 한데 모여 김장을 하고, 이웃에 나누며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2025 제2회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했다.

이날 100여 명의 동참자들은 절임배추 총 2000kg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특히 이번 김장 축제에는 자립준비청년 10명도 함께하며 본인뿐 아니라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담근 김치 2000kg 중 1300kg은 자립준비 청년 및 미혼모 가정과 청소년 쉼터 등 서울지역 10개 시설로 전달됐다.

분당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겨울 나눔 행사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을 11월 15일 대광사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500여 명이 참여한 올해 행사에는 특히 다문화 가정·외국인 참가들도 함께해 행사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김장김치는 지역 800여 세대에 전달됐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1월 15일 반찬봉사단(회장 김진옥)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담근 김치 150통(약 1500kg)을 진안 대광마을회관을 비롯한 지역 경로당과 장애인 단체, 매월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80세 이상 어르신 등 총 150가구에 전달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요즘 김장하기 어려운데 직접 만든 맛있는 김치를 집까지 가져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는 11월 9일 정읍시 감곡면 한 김치공장에서 진행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서 1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불교계 복지시설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임은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탄자니아 해외봉사단원 찾습니다"

아름다운동행, 12월 3일 접수
보리수센터 아이들에 예능교육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서 활동할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아름다운동행은 국제개별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협력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향하는 '2026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KOICA-NGO봉사단' 단원을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 파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원격 1개월+현장 11개월)까지로 1년간이다.

아름다운동행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해외봉사단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보리수아동센터 및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예체능 수업과 행정 업무를 맡게 된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하고 건립한 보리수아동센터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배움의 터전이다. 2024년 완공돼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아름다운동행이 꾸준히 이어 온 탄자니아 아동 지원 사업 '토토의 꿈'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은 미술·체육·음악 등 창의 중심의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해외봉사단원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채용 시 중시하는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면서 "국제현장에서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 참조. 02-737-9553

임은호 기자

비구니硏 '근대 격랑 속 비구니 승가' 세미나

11월 27일 오후 1시, 비구니회관
탁효정·홍경 스님·조은수 등 발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가 1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2025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근대 격랑 속의 한국비구니 승가-일제강점기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실천·저항'을 주제로 한다. 일제강점기라는 격랑 속 한국 비구니승가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는 그들의 자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미나에서는 △불화 화기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비구니의 분포와 활동-니승 인명 DB 분석을 중심으로(탁효정) △일제강점기 한국비구니의 선수행(禪修行) 문화와 선맥 전승(홍경 스님) △일제강점기 비구니들의 시대인식과 독립운동(전영숙) △불교와 근대, 여성의 재발견(조은수) 등이 발제된다. 종합토론에는 하춘생 교수와 효석 스님이 참여한다. 02-3411-8103 임은호 기자

중장급 인사…20명 중 불자 9명

11월 13일 단행 장성 인사서
육군 7명 해 · 공군 각 1명 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11월 13일 단행된 정부의 중장급 장성 인사에서 불자 장성 9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 군 주요 지휘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보직했다. 이 가운데 불자 장성은 육군 7명, 해·공군 각 1명 등 총 9명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평소 올곧은 마음가짐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 온 불자 장성들의 진급은 불자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 주는 동시에 그동안 꾸준히 이어 온 군 포교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자 장성들이 국방과 안보의 최전선에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더욱 빛내 주길 바란다"면서 "군종특별교구는 불자 장성들이 호국 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일곱 법고 만든 공명…의식 넘어 예술로

11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김혜진 기획자 "전통을 현대로"
다양한 종단 스님 한 무대 '눈길'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던 '법고(法鼓)'가 공연 예술로 재구성돼 무대에 오른다. 오는 11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다양한 종단 소속 스님 7명이 출연하는 법고 합주 공연 '법음-일곱 법고, 세상으로 나오다'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북의 울림으로 빚는 선명상'을 주제로 법고의 진동을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공연을 기획·연출한 김혜진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는 "법고는 단순한 타악기가 아니라 수행의 호흡이자 기도"라며 "이번 무대는 전통을 현대 공연 예술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대표는 30년 가까이 전통북과 국악 교육, 공연 기획에 전념해 온 인물이다. 17살, 울진 용궁사에서 처음 법고 연주를 접했을 때 "북의 소리가 마치 수행자의 호흡과 같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김 대표는 이후 스님들의 법고 수련 과정을 꾸준히 관찰하며 예술적 재해석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합주를 넘어 관객이 '울림 속'으로 들어오는 명상 체험형 무대다. 7대의 법고가 무대 위 원형 구조로 배치되고, 스님들은 각 법고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호흡과 리듬을 이어 간다. 북의 진동은 무대 바닥과 객석으로 확산되며,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명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북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인간의 심장 박동과 가장 가까운 악기라며 법고를 통해 관객이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게 김혜진 대표의 설명이다.

법고는 사찰 의식에서 사용되는 의식구로, 여러 명의 스님이 동시에 연주하는 형식은 흔치 않다. 때문에 이번 법고 합주 공연은 그 자체로도 드문 시도다. 전통적 의식 도구를 무대 예술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나 각기 다른 종단의 스님들이 한 무대에 선다는 것 또한 흔치 않은 일이기에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구산·현광·상도·지안·문수·공림 스님, 태고종 도인 스님, 법화종 혜명 스님, 삼론종 근혜 스님 등이 이번 공연의 주인공들이다.

이번 공연이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구산 스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은 공연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언과 실질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에서 법고·가야금·노래·태극권 등 다양한 수행 예술을 접목한 활동을 이어 온 구산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도 7명의 스님이 하나의 호흡으로 공명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산 스님은 "이번 공연이 전통 의례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되는 새로운 포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법고'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 스님들과 기획자 김혜진 대표. 사진 제공=김혜진 대표